

## 브라질 대통령선거와 계급투표: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 I. 문제의 제기
- II. 계급투표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 III. 계급범주별 롤리지지율과 대통령선거 계급지향도 변화
- IV. 소득수준교육수준과 계급 내 부문별 롤리지지율 변화
- V. 대통령선거 투표행태의 연속성과 변화
- VI. 맺음말

### I. 문제의 제기

중남미에서 좌파정당들이 연이어 선거승리를 거두면서 좌파정권 집권이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높은 불평등 수준과 광범위한 빈곤층의 존재는 좌파정당들이 집권할 수 있게 한 사회구조적 조건이다. 사회적 배제와 불이익의 경험은 다수의 노동자와 서민들로 하여금 좌파정당을 선택하게 하는 배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1-B00604). 라틴아메리카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오삼교 선생님과 토론에 참여하신 회원들, 학회지 심사위원들과 조교 김직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Don-Moon Cho(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Sociology, chodon33@hanmail.net), "Presidential Elections and Class Voting in Brazil: With a Special Reference to 2002 and 2006 Presidential Election".

좌파정권의 등장 시점을 고려하면 사회구조적 조건 외에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좌파정당 집권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중남미는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제침체 이후 1990년대 들어 워싱턴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점차 빈곤확대와 불평등심화 등 사회적 폐해만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2000년대 들어서며 좌파정권 집권 추세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계급과 빈민층의 반신자유주의 좌파정당에 대한 투표, 즉 계급투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남미의 불평등 등 사회구조적 조건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가 좌파정당 집권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와 거시적 수준의 인과관계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 시민들의 투표 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미시적 수준의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 본 연구는 좌파정권 등장이란 거시적 현상의 설명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남미 좌파정권 등장 추세를 주도한 브라질의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6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비교·분석한다.

2002년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의 대통령선거 승리를 계급투표의 결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는 이견이 있다. 그와 함께 룰라정부의 계급적 성격 여부도 집권 초기부터 줄곧 논란이 되어 왔다.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의 노동계급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룰라 대선 승리의 계급투표 여부와 룰라정부의 계급적 성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대통령선거에서 룰라가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의 계급투표 여부와 함께 룰라의 지지기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룰라정부의 계급적 성격 여부에 대한 간접적 평가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에서 계급투표 경향이 존재했는가? 계급투표 경향이 존재했다면, 그러한 경향성의 정도는 강화되었는가,

아니면 약화되었는가? 계급범주들 사이의 롤라지지 여부 관련 유형은 롤라정부 하에서 변화했는가, 그대로 유지되었는가? 롤라정부의 계급적 성격 여부는 투표행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2년과 2006년의 대통령선거 투표행위를 분석하여 계급투표 경향성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계급투표 경향성이 강화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2006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계급투표 경향성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화되었으며 계급투표의 내용도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I. 계급투표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 II.1. 계급투표론과 계급투표소멸론

좌파정당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능력 차이에 따른 삶의 조건 차이 발생을 억제하며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는 유권자의 계급적 위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계급투표론이다.

계급투표란 노동계급은 생산현장에서의 착취관계와 시장에서의 열등한 구매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자원재분배를 원하기 때문에 좌파정당에 투표하는 반면, 자본계급과 중관계급은 생산현장과 시장에서의 특전적 위치를 보호하고 시장개입과 자원재분배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파정당에 투표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노동계급의 좌파정당 투표나 자본계급과 중관계급의 우파정당 투표는 모두 물질적·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투표행위라는 점에서, 계급투표론은 투표행위의 핵심적 동기를 경제적 동기로 간주한다.

좌파정당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구성원들의 계급투표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계급의 경제적 동기에 기초한 계급투표가 지배적 투표행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급위치에 따른 객관적 계급이해관계를 인지하고, 계급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급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계급관계의 모순적 성격을 파악하는 계급의식이 발달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위치 ⇒ 계급이익 ⇒ 계급의식 ⇒ 계급투표”의 메카니즘의 작동 정도는 노동조합 조직력이 어느 정도 높은지, 사회경제적 조건 등 외적 요인들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 계급투표론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서의 국가간 편차를 설명한다.<sup>1)</sup>

한편, 노동계급의 계급투표가 좌파정당의 성장을 가져왔고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급투표 성향이 크게 약화되었거나 소멸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투표소멸론은 2차대전 이후 영국 노동자들이 노동당 대신 보수당에 투표하는 추세가 확인되면서 “노동계급 보수주의(working class conservatism)”라는 개념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민주당 대신 공화당의 레이건과 부시에 투표하는 현상을 둘러싸고 “공화당 프롤레타리아(republican proletariat)” “노동계급 공화당(working class republicanism)” 논의로 전개되는 등 계급투표소멸론은 경험적 근거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sup>2)</sup> 계급투표소멸론이 제시하는 인과적 메카니즘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노동계급 계급의식 약화로 계급투표 소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sup>3)</sup> 전후 경제성장에 기초한 포드주의 계급타협과 복지국가 발달에 따른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동자들이 중간계급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 광산, 선박제조, 철강업 등 전통적 산업들의 쇠퇴로 단일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자 주거공동체

1) Korpi(1978), Przeworski(1985), Esping-Andersen(1985, 1990), Hicks(1999), Huber & Stephens (2001)를 참조할 것.

2) Parkin(1967), Mertes(2004), Wiener(2005)를 참조할 것.

3) Parkin(1967), Goldthorpe et al.(1968), Newby(1977), Westergaard(1970)를 참조할 것.

가 와해되면서 노동자문화가 약화되어 노동자들이 지배이데올로기에 쉽게 포섭되게 되었다는 것,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도시의 팽창으로 노동자 주거 지역이 확대되며 노동자들간의 대면적 접촉 기회가 줄어들고 노동자들 사이에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이 집합적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한 요인들로 지적된다.

둘째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산업화 단계를 넘어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계급간 문화적 차별성이 소멸하게 되었다는 이론이다.<sup>4)</sup> 물질적 삶의 조건이 크게 향상되면서 소비행위는 생존을 위한 소비에서 정체성 표현을 위한 소비로 바뀌고, 시민들이 다양한 집단들에 소속됨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이 더욱 복잡다양하고 가변적으로 되어 소비유형과 생활양식에서 개인간 차별성이 존재해도 계급간 차별성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주관성과 가치관에서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약화와 계급간 차별성 소멸로 계급투표행위 양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앞의 두 이론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문화 속에서 새로운 투표행위 유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론적 주장이다.<sup>5)</sup> 정치의 핵심은 더이상 계급 이해관계와 물질적 문제들이 아니라 환경, 평화, 여성인권, 성취향, 자율성 등 탈계급적, 탈물질적 삶의 질 문제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급정치에서 삶의 질 중심의 문화정치로 이행하면서, 투표동기도 물질적·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탈물질적, 정체성 동기로 바뀌게 되어 계급투표행위 대신 탈물질주의 투표행위가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물질주의 투표 성향에 따르면 노동계급이 좌파정당 대신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환경문제에서 환경보호 대신 성장주의에 친화적이고, 자유주의-순응주의 문제에서는 성소수자, 사회질서, 성분업, 낙태 등과 관련하여 순응주의적이기 때문에

4) Bell(1974), Baudrillard(1981), Giddens(1991), Featherstone(1991)를 참조할 것.

5) Clark(2001), Inglehart(1997), Inglehart & Rabier(1986), Achterberg(2006), Nieuwbeerta(2001), Hecter(2004)를 참조할 것.

좌파정당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중간계급이 환경문제와 자유주의-순응주의 문제에서 진보성을 보이면서 좌파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급투표 소멸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후속 연구들은 계급투표 성향이 약화되었으나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sup>6)</sup>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도 계급투표 성향이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문화정치 발달과 더불어 탈물질주의 투표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와 병존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계급투표 소멸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을 뿐, 제3세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계급투표와 탈물질주의 투표성향 관련 연구결과들이 제3세계에서도 경험적 타당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 II.2. 노동자당과 롤라정부

노동자당은 1970년대 후반 상파울루 외곽 ABC지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노조운동(novo sindicalismo)의 성장에 기초하여 ABC지역 금속노조의 주도 하에 1980년 창당되었으며, 주민기초공동체 및 다양한 좌파 운동세력들이 동참했다. 노동자당 초기 당원의 60% 정도가 노동자들로 구성되었고 전국상임위원의 40%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할당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노동자당은 전형적인 노동계급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노동자당은 1989년 대통령선거에서 롤라가 결선투표에 진출하여 46%를 득표하면서 집권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집권을 위한 대중정당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동자당은 대중정

6) Andersen & Heath(2002), Andersen et al.(2006), Evans(1999), Manza et al.(1995), Weakliem & Western(1999), Charnock(1997), Brooks et al.(2006)을 참조할 것.

7) 노동자당의 창당과 계급적 성격, 대중정당 전략 및 대통령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Singer(2001: 13-46), Rodrigues(2002), Meneguello(1989, 2002), Samuels(2004b), Tavoraro & Tavoraro(2007), Miguel(2006)을 참조할 것.

당 전략과 함께 지자체와 지역의회를 넘어서 대도시 시장과 주지사 및 연방 상하원의 점유율을 꾸준히 증대해 갔다. 노동자당의 당원 및 지도부의 계급 구성도 변화하여 노동계급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간계급의 비중이 증대했으며, 그와 함께 노동자당의 지지기반도 노동계급을 넘어 여타 계급들로 확대되었다.

대중정당 전략이 진전되면서 노동자당은 사회주의적 변혁보다 사회적 안정 위에서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노동자당의 정체성 변화는 대통령선거에서 더욱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변화의 정점에 룰라가 승리한 2002년 대통령선거가 위치해 있으며, 2002년 6월 안정과 성장을 강조한 룰라의 '브라질인들에게 보내는 서한'(Lula 2002)으로 표현되었다.

노동자당의 계급적 성격 및 정체성 변화를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는 가운데 룰라정부도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까르도주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연속성 여부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룰라정부 및 노동자당의 노동계급 정체성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sup>8)</sup> 룰라정부는 재정긴축, 헤알(Real)화 고평가, 고금리 정책 등 까르도주정부 경제재정정책의 핵심적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외환보유고의 5배가 넘는 외채와 GDP의 56%에 달하는 정부부채를 안고 출범한 룰라정부로서는 재정긴축과 헤알화 고평가정책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은 고금리정책이었다.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자당과 CUT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고, 산업자본층도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로 비판여론은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룰라정부는 까르도주정부가 추진하던 공기업 사유화 및 적극적 시장개방 같은 전형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는 한편 낙후된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장 개입 정책을 전개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메르꼬수르 중심 중남미 경제통합을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제정책 수립과

8) 룰라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및 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Oliveira(2002), 조돈문(2005a, 2005b)을 참조할 것.

산업별 노사정 협의회 활성화 등 사회적 합의 모델을 통한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까르도주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룰라정부가 까르도주정부와 차별화하며 노동계급 지향성을 확연히 보여준 것은 사회정책 영역이었다. 룰라와 노동자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빈곤퇴치(Fome Zero)’를 대선 필승전략(Coligação Lula Presidente)의 핵심적 선거공약으로 공포하며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룰라와 노동자당이 2002년 대선운동의 핵심 주제로 빈곤퇴치를 선택한 것은 빈곤과 사회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인 동시에 노동계급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룰라정부의 사회정책으로 실천되었다.

룰라정부 사회정책의 핵심은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무토지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 농지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농지를 배분하는 동시에 농업용수와 생산기술까지 함께 지원하고 전기공급 프로그램, 수확보험정책, 식량구입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 경작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노동자들을 위해 법정최저임금을 200R에서 350R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동빈곤층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체 노동계급의 임금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노동시장 정책도 주로 고용계약서 없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우선시했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사회예산을 확대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직접지출의 비중을 높였고,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가족지원금제도(bolsa familia) 등의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여 빈곤선 이하의 시민들에게 식량 배분과 재정 지원을 집중했다.

노동자당의 노동계급 정체성과 룰라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은 룰라와 노동자당의 지지기반 구성 및 시민들의 계급투표 여부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브라질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행연구들<sup>9)</sup>은 대체로 계급투표 경향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9) Samuels(2004a), Coutinho & Figueiredo(2003), Meneguello(2002), Balbachevsky & Holzacker (2004), 조돈문(2008)을 참조할 것.



계급투표 대신 쟁점 투표 성향이 강화되는 한편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이르면, 룰라 지지자와 타 후보 지지자 사이에 계급 구성이나 사회정치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 II.3.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6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Criterium에서 실시한 일련의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투표행위 변화 여부를 분석한다. 계급투표를 검토하고 비교연구를 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들 가운데 동일한 계급위치 관련 설문문항과 가구소득 설문문항을 포함한 여론조사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택하였다. 2002년 대통령선거 투표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2년 7월, 9월과 10월 등 3회에 걸쳐 실시된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2006년 대통령선거 투표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006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여론조사들은 브라질 전국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유권자집단의 인구학적 분포에 맞춰 가중치들이 주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들은 2002년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7209명, 2006년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9644명이다.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 사이에 발생한 변화 추세가 역사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절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994년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자료도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 조사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1994년 대통령선거 투표행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Datafolha에 의해 1994년 8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 자료들이다. 1994년 Datafolha 조사자료는 2002년과 2006년 Criterium 조사자료와 계급위치 관련 설문 문항과 소득수준 관련 문항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설문 문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 가능하도록 변수 범주들을 통합 혹은 재조정하였다.

Criterion과 Datafolha 설문지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4계급들 가운데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재(skill asset)와 조직재(organization asset) 관련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수단인 자본재(capital asset)를 소유한 유산계급을 자본계급과 뺀띠부르주아로 나누고, 비소유계급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 미분화된 임금노동계급으로 범주화한 3계급 모델을 사용한다(<표 1> 참조).

<표 1> 계급 모델 범주화 방식

3계급 모델	6계급 모델	2블록모델
자본계급	자본계급	특전적 계급블록
뺀띠부르주아	전문직 뺀띠	
	공식부문 뺀띠	
	비공식부문 뺀띠	
임금노동계급	등록 임금노동자	비특전적 계급블록
	비등록 임금노동자	
비취업	비취업	

하지만, 뺀띠부르주아는 자본재뿐만 아니라 대졸자로서 기술재까지 소유한 전문직 뺀띠부르주아, 자본재 크기가 상대적으로 일정 규모에 달하여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자본계급으로 성장하는 경로에 위치한 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 그리고 자본재의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재도 보유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공식부문의 일자리 대안을 지니지 못한 비자발적 영세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비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 뺀띠부르주아와 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는 자본계급과 함께 특전적인 유산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비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는 공식부문의 임금노동자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자영업자로 내

몰린 위장된 프롤레타리아(disguised proletariat)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최하위층에 소속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쁘띠부르주아가 이처럼 이질적인 세 계급범주들로 구성된 반면, 임금노동계급의 경우 본 연구가 사용하는 조사자료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으로 범주화할 정보는 없으나 사회보장제(ISS)를 납부하며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 임금노동자와 사회보장제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비등록 임금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등록 임금노동자 집단은 주로 공공부문 사업장 혹은 사적부문 중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된 반면 비등록 임금노동자 집단은 소규모·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후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뿌띠부르주아를 세 개의 하위 계급범주로, 임금노동계급을 두 개의 하위 계급범주로 세분화하여 6개의 계급범주들을 포함한 6계급 모델도 사용한다. 한편 실업자, 연금생활자, 학생, 주부 등 비취업자들은 통제 범주로 3계급 모델과 6계급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브라질 유권자 전체의 투표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수준은 월 단위 가족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하, 최저임금 초과부터 최저임금 2배 이하, 최저임금 2배 초과부터 최저임금 5배 이하, 최저임금 5배 초과로 나누고, 교육수준은 교육연수 1-8년의 초등학교 학력, 교육연수 9-11년의 고등학교 학력, 교육연수 12년 이상의 대학교 학력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계급범주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표 2>와 같이 뿌띠부르주아와 임금노동계급의 계급내적 이질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뿌띠부르주아의 경우 전문직·공식부문 뿌띠부르주아와 비공식부문 뿌띠부르주아 사이의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lt;표 2&gt; 계급범주별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계급	2002년		2006년	
	소득수준	교육수준	소득수준	교육수준
비취업	2.1329	1.3360	2.1452	1.5047
자본계급	3.4673	1.7999	3.3705	1.9539
쁘띠부르주아	2.3306	1.3623	2.4012	1.6007
전문직 뿌띠	3.2479	2.4768	3.0845	2.3557
공식부문 뿌띠	2.8460	1.4522	2.7440	1.7167
비공식부문 뿌띠	2.1910	1.2932	2.1934	1.4596
임금노동계급	2.6486	1.6582	2.6758	1.8498
등록 임금노동자	2.7921	1.7412	2.7836	1.9168
비등록 임금노동자	2.2026	1.4020	2.2568	1.5920
전체	2.3518	1.4447	2.3622	1.6229

이처럼 뿌띠부르주아에 특전적 계급범주와 비특전적 계급범주가 혼재되어 있어 계급투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급내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전체 계급범주들을 특전적 계급블록과 비특전적 계급블록으로 양분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계급범주들을 양대 계급블록으로 양분하면, 특전적 계급블록에는 자본계급, 전문직 뿌띠부르주아와 공식부문 뿌띠부르주아가 소속되고, 비특전적 계급블록에는 비공식부문 뿌띠부르주아, 등록 임금노동자와 비등록 임금노동자가 소속되며, 통제집단이 비취업자 집단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으로 비특전적 계급블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III. 계급범주별 룰라지지율과 대통령선거 계급지형도 변화

룰라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에서 브라질사민당(PSDB, Partico da Social Democracia Brasileira) 세하(Serra) 후보를 누르고 당

선되었고, 2006년에는 역시 결선투표에서 브라질사민당 아우키민(Alckmin)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룰라의 득표율은 2002년 63.0%, 2006년 60.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의 계급별 룰라지지율<sup>10)</sup>을 산출하면 <표 3>과 같다. 룰라지지율은 2002년에는 56.00%, 2006년에는 56.6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자료의 룰라지지율이 룰라가 결선투표에서 득표한 실제 득표율에 미달하는 것은 설문조사 당시에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투표 직전에 후보를 결정한 부동층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3> 3계급모델과 계급범주별 룰라지지율 변화

계급	룰라지지율		평균차 검증			
	2002	2006	평균차	t-value	자유도	유의도
자본계급	.4530	.4158	-.03723	-.508	206	.612
빚때부르주아	.5732	.5616	-.01161	-.729	3933	.466
임금노동계급	.5869	.5629	-.02399	-1.646	4623	.100
비취업	.5369	.5746	.03768	3.308	7878	.001
합계	.5600	.5662	.0062	-.802	16646	.423
사례수	7128	9644				
<Anova검증>						
F값*	2.638(5.909)	5.882(4.811)				
유의도*	.072(.001)	.003(.002)				

\* 칸의 F값과 유의도는 비취업자를 제외한 계급간 Anova검증 결과이며, 괄호 속 값은 비취업자를 포함한 검증결과 값임.

10) 설문 문항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가 오늘 실시된다면, 귀하는 \_\_\_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였으며, 2002년 조사에서는 룰라와 세하, 2006년 조사에서는 룰라와 아우키민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본 연구는 룰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1의 값을 주고, 아우키민을 선택했거나,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 모르겠다는 응답들은 0의 값을 주어 “룰라 지지” 변수를 만들었다.

계급 간 롤라지지율 편차는 통제집단인 비취업자를 포함할 경우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ova 검증 결과에 따르면, 통제집단인 비취업자를 제외할 경우 계급 간 편차는 2002년의 경우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는 .001 수준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02년에 비해 2006년 대선에서 계급투표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계급집단별 롤라투표율 변화를 보면, 비취업자 집단만 유의미한 롤라지지율 상승을 보였고, 임금노동계급, 뼈띠부르주아, 자본계급 등 세 계급 모두 롤라지지율 하락을 보였으나, 그 하락 정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편, 계급간 롤라지지율 편차 유형을 보면 2002년과 2006년 대통령선거가 보이는 계급지도는 거의 동일하다. 임금노동계급과 뼈띠부르주아가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롤라의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성한 반면, 자본계급은 롤라를 거부하는 세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비취업자 집단의 경우 2002년 대선에서는 중립적 입장을 보였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친롤라 블록으로 편입되었다.

계급위치를 6계급 모델로 좀더 정교하게 세분하면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다. 6계급 모델로 분석하면, Anova검증 결과 비취업자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계급간 롤라지지율 편차는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에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4>). 6계급 모델 역시 3계급 모델과 같이 계급투표 현상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며, 3계급 모델에 비해 6계급 모델 분석에서 F값이 커지고 유의도가 강화된 것은 정교한 6계급 모델의 설명적 우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 4> 6계급모델과 계급범주별 롤라지지율 변화

계급	롤라지지율		평균차 검증			
	2002	2006	평균차	t-value	자유도	유의도
자본계급	.4530	.4158	-.03723	-.508	206	.612
전문직 뺀띠	.6761	.4838	-.19233	-2.715	264	.007
공식부문 뺀띠	.4572	.4727	.01546	.410	780	.682
비공식부문 뺀띠	.5908	.6026	.01185	.648	2885	.517
등록 임금노동자	.6050	.5663	-.03871	-2.344	3586	.019
비등록 임금노동자	.5312	.5501	.01892	.611	1035	.542
비취업	.5369	.5746	.03768	3.308	7878	.001
합계	.5600	.5662	.0062	-.802	16646	.423
사례수	7128	9644				
<Anova검증>						
F값*	6.719(7.622)	8.864(7.829)				
유의도*	.000(.000)	.000(.000)				

\* 칸의 F값과 유의도는 비취업자를 제외한 계급간 Anova검증 결과이며, 괄호 속 값은 비취업자를 포함한 값임.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 사이의 계급별 롤라지지율 변화를 보면, 비취업자, 비등록 임금노동자, 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 비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 순으로 롤라지지율 상승을 보인 반면, 전문직 뺀띠부르주아, 등록 임금노동자, 자본계급 순으로 지지율 하락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전문직 뺀띠부르주아와 등록 임금노동자의 지지율 하락과 비취업자의 지지율 상승은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계급별로 롤라지지율 변화를 검토하면, 먼저 자본계급의 경우 두 대선에서 모두 가장 반롤라적인 투표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소폭의 롤라지지율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계급이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롤라 거부세력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롤라정부 하에서 롤라에 대한 거부감은 약화되기는커녕 도리어 소폭이나마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뺀띠부르주아의 경우 전문직 뺀띠부르주아의 롤라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와 비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의 롤라지지율은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소폭 상승했다.

전문직 뽀띠부르주아의 경우 2002년 대선에서는 가장 높은 롤라지지율을 보였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롤라지지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2006년 대선에서는 전문직 뽀띠부르주아는 공식부문 뽀띠부르주아와 함께 매우 낮은 롤라지지율을 보인 반면, 비공식부문 뽀띠부르주아가 가장 높은 롤라지지율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임금노동계급의 경우 등록 임금노동자의 롤라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한 반면, 비등록 임금노동자의 롤라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상승하였다. 뽀띠 부르주아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계급 내에서도 특전적 부분이 상대적 지지율 하락을 보인 반면 비특전적 부문은 상대적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

2002년과 2006년 대선을 6계급 모델로 비교분석하면 계급지형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롤라의 핵심적 지지기반은 2002년 대선에서 전문직 뽀띠부르주아, 등록 임금노동자, 비공식부문 뽀띠부르주아로 형성되었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전문직 뽀띠부르주아가 이탈하고 비등록 임금노동자와 비취업자가 합류하였다. 롤라에 대한 거부세력의 핵심은 2002년 자본계급과 공식부문 뽀띠부르주아가 구성했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전문직 뽀띠부르주아가 합류했다. 한편 2002년 비취업자와 비등록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완충적 중간지대 계급범주들이 2006년 대선에서는 모두 롤라의 핵심적 지지기반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2002년 대선에서 친롤라, 중간, 반롤라 블록 등으로 삼분되었던 계급지형도가 2006년 대선에서는 친롤라 블록과 반롤라 블록으로 양분되었다. 2006년 대선에서 등록·비등록 임금노동계급, 비공식부문 뽀띠부르주아와 비취업자가 친롤라 블록을 구성한 반면, 자본계급, 전문직 뽀띠부르주아와 공식부문 뽀띠부르주아 등 특전적 유산계급 범주들이 반롤라 블록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대선의 계급지형도 변화는 롤라정부 하에서 브라질 사회에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3계급 모델 분석에서는 2002년 대선의 계급지형도가 2006년 대선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6계급 모델로 분석하면 양극화라는 계급지형도의 내용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 사이에 진행된 양극화 현상은 계급별 주들을 특전적 계급블록과 비특전적 계급블록으로 나누어 검토하면 잘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2002년 대선에 비해 2006년 대선에서 특전적 계급블록의 롤라지지율은 .026만큼 하락한 반면 비특전적 계급블록의 롤라지지율은 .012만큼 상승함으로써 양대 계급블록 사이의 롤라지지율 차이는 .0723에서 .1100으로 확대되었다.

<표 5> 특전-비특전 계급블록 사이 롤라지지율 차이 검증

	롤라지지율		평균차 검증			
	2002년	2006년	평균차	t-value	자유도	유의도
특전적계급블록	.4917	.4661	-.02563	-.846	1254	.398
비특전적계급블록	.5640	.5761	.01210	1.505	15390	.132
지지율 차이	.0723	.1100				
<Anova검증>						
F값	13.766	36.061				
유의도	.000	.000				

각 계급블록의 2002년과 2006년 사이 롤라지지율 상승과 하락의 정도는 작아서 유의미한 수준에는 달하지 못하지만, Anova검증 결과 F값이 2002년에 비해 2006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특전적 계급블록과 비특전적 계급블록 사이의 투표경향성 차이가 그만큼 확대되어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일정 정도 진전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처럼 3계급 모델이나 6계급 모델 혹은 양대 계급블록 모델로 분석하여도 계급투표 현상은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 사이 롤라정부 하에서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진행되며 계급투표 현상이 다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롤라 투표 여부가 계급 현상으로 전개되었으며, 롤라정부는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계급투표의 결과로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롤라 집권 기간은 롤라정부의 계급적 성격을 정책들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각 계급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을 진전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계급투표 경향성이 강화됨으로써 2006년 대선에서는 양극화된 계급지형도를 연출하게 되었다.

#### IV. 소득수준·교육수준과 계급 내 부문별 롤라지지율 변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심을 다양화·이질화하며 이러한 과정은 동일 계급 내에서도 전개된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그 자체로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와 함께 그 영향의 방향 및 정도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을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4등분할 때, Anova검증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롤라지지율 차이가 2002년에는 .10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001 수준에서도 유의미하게 되었다(<표 6>).

<표 6> 소득수준별 롤라지지율 변화

	롤라지지율		평균차 검증			
	2002	2006	평균차	t-value	자유도	유의도
소득수준						
1SM 이하	.5463	.6873	.14107	9.169	3932	.000
1-2SM	.5561	.5800	.02395	1.706	5090	.088
2-5SM	.5690	.5325	-.03659	-2.433	4461	.015
5SM 초과	.5765	.4367	-.13977	-7.161	2613	.000
합계	.5606	.5696				
<Anova 검증>						
F값	1.120	84.111				
유의도	.339	.000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 사이 최저임금 2배 이하 소득 집단들

의 경우 모두 룰라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최저임금 2배를 초과하는 소득 집단들의 경우 룰라지지율이 모두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룰라의 재집권을 둘러싸고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2002년 대선에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룰라 지지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룰라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2006년 대선에서는 소득수준과 룰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뒤집어졌다. 2006년 대선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룰라지지율이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룰라 지지도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집단의 룰라지지율 상승과 고소득집단의 룰라지지율 하락 추세가 전개됨으로써, 2002년 대선과는 달리 2006년 대선에서는 저소득집단들이 룰라 재집권의 핵심을 구성한 반면 고소득집단들은 룰라 재집권 저지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룰라정부의 지속 여부가 그만큼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수준별 룰라지지율 변화를 검토하면, <표 7>에서 보듯이 교육수준에 따른 룰라지지율 차이는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에서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룰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뒤집어졌다.

<표 7> 교육수준별 룰라지지율 변화

교육수준	룰라지지율		평균차 검증			
	2002	2006	평균차	t-value	자유도	유의도
초등	.5389	.6222	.08328	8.255	9506	.000
고등	.5919	.5365	-.05535	-3.992	5500	.000
대학	.5923	.4272	-.16506	-6.696	1837	.000
합계	.5582	.5661				
<Anova 검증>						
F값	9.524	88.236				
유의도	.000	.000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 사이에 고등학교 학력자들과 대학교 학력자들의 롤라지지율은 유의미하게 하락한 반면, 초등학교 학력자들의 롤라지지율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2년 대선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롤라지지율이 상승했지만, 2006년 대선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롤라지지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는 전문직 뼈띠부르주아의 롤라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비등록 임금노동자의 롤라지지율이 상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력수준간 롤라지지율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학력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뒤집어지면서 롤라의 핵심적 지지기반은 고학력집단들에서 저학력집단들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2002년 대선에서는 고소득·고학력 집단들이 저소득·저학력 집단들에 비해 롤라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저소득·저학력 집단들을 중심으로 롤라 지지기반이 형성된 반면 고소득·고학력 집단들은 롤라 재집권에 대한 거부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영향력 방향 변화는 계급내 범주들 사이의 롤라지지율 편차 유형도 변화시키게 되었다.

각 계급 내 소득수준별 롤라지지율 편차를 보면, <표 8>에서 보듯이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은 상이한 유형을 보여준다. 2002년 대선에서 자본계급, 전문직 뼈띠부르주아와 공식부문 뼈띠부르주아 집단들은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롤라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비취업자, 비공식부문 뼈띠부르주아, 등록 임금노동자와 비등록 임금노동자 집단들은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롤라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계급내 소득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정(+)의 상관관계와 부(-)의 상관관계가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상관관계들도 일관된 방향성을 지닌 직선형적(linear) 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의 방향이 휘어지는 곡선형적(curvilinear)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2002년 대선에서 각 계급내 소득수준의 롤라지지율 효과는 정(+)과 부(-)의 효과가 뒤섞여 있는 가운데 정(+)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강하여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롤라지지율도 상

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8> 계급내 소득수준별 롤라지지율: 2002년 & 2006년 대선

계급 \ 가족 소득수준	1SM이하	1-2SM	2-5SM	5SM초과	합계
<2002년 대통령선거>					
자본계급	1.0000 <sup>11)</sup>	.4356	.4837	.4151	.4427
전문직 뿐띠	.8423	.7660	.5867	.6703	.6714
공식부문 뿐띠	.5679	.5170	.3805	.4567	.4549
비공식부문 뿐띠	.5855	.5861	.5967	.6210	.5926
등록 임금노동자	.6057	.5898	.5910	.6427	.6054
비등록 임금노동자	.4987	.5078	.6006	.5532	.5349
비취업	.5269	.5427	.5602	.5321	.5400
합계	.5469	.5579	.5707	.5800	.5623
<2006년 대통령선거>					
자본계급	.4420	.6226	.4215	.3733	.4271
전문직 뿐띠	.8388	.6529	.5039	.3321	.4842
공식부문 뿐띠	.6703	.4466	.4870	.3921	.4677
비공식부문 뿐띠	.7366	.5999	.5125	.5312	.6066
등록 임금노동자	.6589	.5979	.5919	.4777	.5722
비등록 임금노동자	.6104	.5708	.5444	.4051	.5549
비취업	.6828	.5806	.5042	.4255	.5775
합계	.6879	.5804	.5311	.4393	.5696

한편, 2006년 대선을 보면 각 계급 내 소득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관되게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관관계 유형도 자본계급을 제외하면 직선형적 관계로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롤라지지율이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11) 자본계급 가운데 최저임금 이하 소득 수준의 사례는 1명에 불과하여 롤라지지율 1.0은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자본계급으로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을 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측정오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는 롤라정부의 정책, 특히 사회정책들이 모든 소득계층들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집단들보다는 저소득 집단들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집단들은 실질적인 물질적 혜택 속에서 롤라 지지로 선회하거나 롤라 지지를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고소득 집단들은 저소득 집단들에 우호적인 롤라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고소득 집단들 가운데 2002년 대선에서 롤라에게 투표했던 구성원들도 상당 부분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급내 소득수준별 롤라 지지도 편차를 보면 소득수준의 롤라지지율에 대한 부(-)의 효과가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써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과 그 이상의 소득계층들과의 롤라지지율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이 롤라정부의 빈곤퇴치 정책과 가족지원금제도, 적극적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및 농지개혁 프로그램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각 계급내 교육수준별 롤라지지율 편차를 보면, <표 9>에서 보듯이 2002년과 2006년 대선은 소득수준의 경우보다 더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02년 대선의 경우 곡선형적 관계와 직선형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학력자 집단과 고등학교 학력자 이상 집단으로 대별하면 교육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정(+)의 직선형적 관계가 확인된다.

<표 9> 계급내 교육수준별 롤라지지율: 2002년 & 2006년

계급 \ 교육수준	초등	고등	대학	합계
<2002년 대통령선거>				
자본계급	.3374	.4477	.7320	.4530
전문직 뼈대	.6098	.6152	.7086	.6761
공식부문 뼈대	.4601	.4284	.5206	.4572
비공식부문 뼈대	.5851	.6114	.5659	.5908
등록 임금노동자	.5828	.6301	.6056	.6050
비등록 임금노동자	.5324	.5407	.4612	.5312
비취업	.5164	.5897	.5758	.5370
합계	.5406	.5940	.5949	.5600
<2006년 대통령선거>				
자본계급	.5733	.4109	.2383	.4158
전문직 뼈대	.7592	.3952	.3985	.4838
공식부문 뼈대	.5252	.5083	.2227	.4727
비공식부문 뼈대	.6344	.5640	.5019	.6026
등록 임금노동자	.6475	.5457	.4966	.5663
비등록 임금노동자	.5949	.5200	.4392	.5501
비취업	.6225	.5366	.3993	.5746
합계	.6229	.5366	.4278	.5662

한편, 2006년 대선을 보면 모든 계급들에서 교육수준과 롤라지지율은 정(+)의 직선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계급 범주 내에서 교육수준이 상승할수록 롤라지지율은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002년 대선에서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롤라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약하게나마 나타난 반면, 2006년 대선에서는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롤라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능력주의와 시장원리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기 때문에 브라질정부의 평등주의적 사회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발달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2002년 대선에서는 각 계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고학력 집단들이 보다 높은 몰라지지율을 보인 반면, 2006년 대선에서는 각 계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저학력 집단들이 고소득·고학력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몰라지지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몰라정부의 정책들이 고소득·고학력을 특성으로 하는 특전적 집단들 대신 저소득·저학력을 특성으로 하는 비특전적 집단들을 지향한 결과로 추정될 수 있다.

## V. 대통령선거 투표행태의 연속성과 변화

2006년 대통령선거의 계급지향도를 2002년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1994년 대통령선거와 비교하면 역사적 연속성과 변화를 잘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대선은 1998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사민당의 까르도주(Cardoso) 후보가 일차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며 2위 득표자인 몰라를 이겼다. 1994년 대선과 1998년 대선은 몰라와 까르도주의 득표율도 각각 28-55와 30-56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지지기반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94년 대선에서 자본계급과 공식부문 삐띠부르주아는 각각 17%와 26%의 낮은 몰라지지율로 까르도주의 주요 지지기반을 구성하였다(<표 10>). 한편, 등록·비등록 임금노동자, 비공식부문 삐띠부르주아, 비취업자와 함께 전문직 삐띠부르주아가 1994년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몰라지지율을 보여주었으며 2002년 대선에서도 몰라의 핵심적 지지기반을 구성하였다.



<표 10> 역대 대통령선거 롤라지지율 변화, 1994-2006

계급	롤라지지율			시기별 변화(증감율)		
	1994년	2002년	2006년	1994-2002	2002-2006	1994-2006
비취업	.3089	.5369	.5746	.2280(73.8%)	.0377(7.0%)	.2657(86.0%)
자본계급	.1657	.4530	.4158	.2873(173.4%)	-.0372(-8.2%)	.2501(150.9%)
전문직 뺀띠	.3277	.6761	.4838	.3484(106.3%)	-.1923(-28.4)	.1561(47.6%)
공식부문 뺀띠	.2604	.4572	.4727	.1968(75.6%)	.0155(3.4%)	.2123(81.5%)
비공식부문 뺀띠	.3135	.5908	.6026	.2773(88.5%)	.0118(2.0%)	.2891(92.2%)
등록 임금노동자	.3519	.6050	.5663	.2531(71.9%)	-.0387(-6.4%)	.2144(60.9%)
비등록 임금노동자	.3393	.5312	.5501	.1919(56.6%)	.0189(3.6%)	.2108(62.1%)
전체	.3203	.5600	.5662	.2397(74.8%)	.0062(1.1%)	.2459(76.8%)
<특전비특전블록>						
특전적 계급블록	.2531	.4917	.4661	.2386(94.3%)	-.0256(-5.2%)	.2130(84.2%)
비특전적 계급블록	.3293	.5640	.5761	.2347(71.3%)	.0121(2.1%)	.2468(74.9%)
비특전-특전블록	.0762	.0723	.1100	-.0039(-5.1%)	.0377(52.1%)	.0338(44.4%)

1994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의 차이점으로 먼저 1994년 대선 계급 지형도는 특전적 계급블록의 헤게모니 하에서 롤라를 지지하는 비특전적 계급블록의 세력화가 제약되어 있었던 반면 2002년 대선에서는 비특전적 계급블록의 세력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대선 정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002년 대선은 1994년 대선에 비해 계급간 이데올로기적 분화가 더욱 진전되어 계급지형도는 중간지대를 포함하는 삼분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4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의 연속성은 양대 계급블록 사이의 롤라지지율 차이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1994년과 2002년 대선 사이 특전적 계급블록과 비특전적 계급블록의 롤라지지율은 모두 .23 정도로 비슷하게 상승함으로써 양대 계급블록 사이의 롤라지지율 차이도 .076에서 .07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의 핵심은 브라질 대선의 계급지형도가 자본계급과 공식부문 뺀띠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세력의 특전적 계급범주들과 등록 임금노동자, 비공식부문 뺀띠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지향세력의 비특전적 계급범주들로 나뉘어졌다는 점이다. 자본계급은 1994

년 대선에서부터 이미 룰라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계급적 특성은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가장 높은 룰라지지율을 보인 전문직 뺨띠부르주아는 1994년 대선에서 이미 여타 특전적 계급범주들과는 달리 임금노동계급들과 비슷한 정도로 높은 룰라지지율을 보여줌으로써 2002년 대선에서의 모습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1994년과 2002년 대선 사이에는 룰라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계급지형도의 연속성이 두드러진 반면, 2002년과 2006년 대선 사이에는 전반적인 룰라지지율은 정체된 가운데 계급지형도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특전적 계급블록과 비특전적 계급블록 사이의 룰라 지지도 차이는 1994년과 2002년 사이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6년 대선에서는 .11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계급지형도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등록 임금노동자는 룰라의 1994년 대선에서 가장 높은 룰라 지지율을 보여줌으로써 룰라의 당선 가능성이 낮았던 시기 동안 가장 현신적인 지지기반이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노동자당이 신노조운동에 의해 창당되고 CUT(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의 조직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면서 노동계급에 상당 정도 의존적이었던 초기 노동자당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노동자당의 대중정당 전략과 함께 노동자당의 노동계급 중심성이 약화되며 지도부의 계급구성에서도 노동계급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간계급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노동자들의 당원 비율도 하락하고 노동자들의 현신성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되었다. 노동자당이 노동계급 정당에서 대중정당의 모습을 강화해 가면서 지지기반의 계급적 성격도 변화하게 되어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에서 가장 높은 룰라지지율을 보인 계급범주는 등록 임금노동자 집단이 아니라 각각 전문직 뺨띠부르주아와 비공식부문 뺨띠부르주아였다.

계급 내 소득수준별·교육수준별 룰라지지율 편차를 봐도 <표

11>과 같이 1994년 대선은 2002년 대선과 상당정도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 대선 설문조사의 경우 최저임금 2배수 이하 범주들을 통합하여 2002년 대선 투표성향과 엄밀하게 대조하기는 어렵지만 각 계급 내 소득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직선형적 관계와 곡선형적 관계가 혼재해 있는 가운데 소득수준 증대함에 따라 롤라지지율은 경미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각 계급 내 교육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직선형적 관계가 주도하며 교육수준 상승과 함께 롤라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 효과는 고등교육 학력자와 대학교육 학력자 사이에서 크게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11> 계급내 소득수준별·교육수준별 롤라지지율, 1994년

계급	소득수준				교육수준			
	2SM 이하	2-5SM	5SM 초과	전체	초등	고등	대학	합계
자본계급	.2979	.1682	.1484	.1681	.1299	.1739	.1894	.1643
전문직 뼈대	.3448	.3553	.3165	.3275	.3333	.2857	.3322	.3286
공식부문 뼈대	.3001	.2452	.2414	.2660	.2568	.2730	.2394	.2602
비공식부문 뼈대	.3254	.3213	.2599	.3146	.3176	.2975	.2941	.3133
등록 임금노동자	.3493	.3559	.3571	.3531	.3406	.3270	.4395	.3522
비등록 임금노동자	.3482	.3250	.3077	.3390	.3396	.3250	.4416	.3395
비취업	.3200	.3308	.2780	.3146	.3065	.3112	.3445	.3091
합계	.3322	.3268	.3012	.3238	.3158	.3094	.3807	.3204

이처럼 1994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이 보이는 연속성은 계급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개별 계급 내에서도 롤라 지지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분화 추세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체된 이데올로기적 분화 추세는 롤라 집권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며 2006년 대선에서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 계급지향도는 1994년 대선의 미분화된 양

상에서, 2002년 대선에서는 삼분된 양상을 거쳐, 2006년 대선에서는 친롤라 블록과 반롤라 블록으로 양극화된 계급지형도로 변천하게 된 것이다.

## VI. 맺음말

본 연구는 2002년 대선과 2006년 대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계급투표 현상과 계급지형도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계급투표 현상은 2002년 대선에 이어 2006년 대선에서도 유의미했으며, 2006년 대선에서는 계급투표 경향이 보다 더 강화되어 계급투표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계급투표소멸론이 기각되면서 계급투표 소멸을 설명하는 인과적 메카니즘들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없어져 심층적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인과적 메카니즘들이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은 원인들을 추정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노동계급 계급의식 약화 여부는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이 확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급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브라질은 선진자본주의 사회들과는 달리 비공식부문과 빈곤층의 대규모 존재와 같은 제3세계적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 아직 탈산업사회로 이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물질적 생존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는 탓으로 정체성 표현을 위한 소비행위나 문화정치에 기초한 탈물질주의 투표행위는 아직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06년 대선에서는 계급투표 경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특전적 계급범주들을 중심으로 한 친롤라 블록과 특전적 계급범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롤라 블록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어 계급범주별 계급위치(class location)와 계급입장(class position)의 상응성이 강

화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계급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대선에서는 후보 선택에 있어 계급범주들이 미분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2002년 대선에 이르면 계급범주별로 분화되며 삼분구도를 형성했는데, 2006년 대선에서는 룰라 지지를 둘러싸고 계급범주들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친룰라 블록과 반룰라 블록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했었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중간지대의 계급범주들이 분화하면서 양대 계급블록들 사이의 대립 양상이 정립된 것이다.

2002년 대선에 비해, 2006년 대선에서는 계급들 사이의 단순한 투표경향 차별성 수준을 넘어서 계급범주들의 계급위치와 계급입장 사이의 상응성이 크게 높아졌다. 2002년 대선에서 룰라 지지를 둘러싸고 특전적 계급범주들과 비특전적 계급범주들이 뒤섞여 있었으나, 2006년 대선에서는 비공식부문 뺨띠부르주아, 등록·비등록 임금노동자, 비취업자 등 비특전적 계급범주들이 룰라의 핵심적 지지기반을 구성한 반면, 자본계급, 전문직 뺨띠부르주아와 공식부문 뺨띠부르주아 등 특전적 계급범주들이 룰라의 재선을 거부하는 반룰라 블록을 구성함으로써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셋째, 2002년과 2006년 사이 룰라지지율에서 변화를 보인 계급범주들의 경우, 대체로 특전적 계급범주들의 룰라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비특전적 계급범주들의 룰라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는 룰라정부의 계급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전문직 뺨띠부르주아의 룰라지지율 하락과 비취업자의 룰라지지율 상승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문직 뺨띠부르주아는 룰라의 핵심적 지지 세력에서 핵심적 거부 세력으로 바뀌었다. 전문직 뺨띠부르주아의 이탈은 룰라정부 정책의 계급적 성격 발현에 대한 실망과 반발을 표현한 것이며, 비특전적 계급범주들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취업자 집단의 경우 중간 지대에서 벗어나 룰라의 핵심적 지지기반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룰라정부의

계급적 성격이 표현된 사회정책들에 대한 계급 구성원들의 평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임금노동계급의 경우 비등록 임금노동자의 롤라지지율은 경미하게나마 상승한 반면, 등록 임금노동자의 롤라지지율은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비등록 임금노동자의 롤라지지율 상승은 비특전적 계급범주들의 롤라지지율 상승 추세 속에서 전개된 현상으로서 계급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등록 임금노동자의 경우 롤라지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핵심적 롤라 지지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롤라정부에 실망했지만 롤라정부와 노동자당의 계급적 차별성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친 데 대한 반발일 뿐 우경화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의 롤라정부와 노동자당에 대한 충성도가 유지되는 것은 CUT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들의 활동과 CUT와 노동자당 사이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롤라정부를 둘러싼 특전적 부분과 비특전적 부분 사이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계급투표 경향의 강화는 계급범주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개별 계급범주들 내에서도 전개되었다.

모든 계급범주 내에서 2002년 대선에서는 고소득·고학력 집단들이 저소득·저학력 집단들에 비해 경미하나마 높은 롤라지지율을 보인 반면, 2006년 대선에서는 저소득·저학력 집단들이 고소득·고학력 집단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롤라지지율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소득수준·학력수준과 롤라지지율 사이 상관관계의 역전 현상은 롤라정부 정책의 계급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대선 사이 롤라정부 하에서 고소득·고학력 집단들이 롤라정부로부터 이탈한 반면 저소득·저학력 집단들이 롤라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된 것이다. 이는 롤라정부의 정책이 저소득·저학력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반면, 고소득·고학력 집단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2002년 대선에 비해 2006년 대선에서 계급지형도가 양극화된 것은 까르도주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진전되었지만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전개되지 않은 반면

좌파정권인 룰라정부 하에서 계급적 자각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까르도주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공세적으로 추진되며 빈민층 확대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던 시기에는 시장지배 논리가 브라질 시민들 사이에 광범하게 확산된 반면, 룰라정부 하에서 공세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중단과 적극적 사회정책의 추진으로 빈민층이 축소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시장규제와 적극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시기에는 신자유주의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보수화 추세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질화된 반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진행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시장지배 이데올로기가 풍미하는 가운데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였으나, 룰라정부 하에서 계급 이해관계에 대해 자각하며 계급적 의식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계급적 자각과 의식의 발달 현상은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박탈로부터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박탈 속에서 형성된 불만은 잠재역량으로 존재하다가 노동계급과 사회적 배제 세력들에 우호적인 정권 하에서 잠재역량이 현실화되며 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특전적 계급범주들은 물질적 박탈 과정 하에서보다 물질적 수혜 속에서 계급투표 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반면, 특전적 계급범주들의 경우 룰라정부 정책들이 비특전적 계급들을 지향하며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룰라정부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룰라의 집권을 지지했던 구성원들도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룰라정부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에 따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조사들은 출구조사가 아니라서 실제 투표행위에 비해 부동층의 비율이 높고, 설문조사들에 계급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정교한 계급모델 분석을 실시하기 어려웠으며, 설문조사 기관과 조사 시점에 따라 조사 문항

들이 상이하여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제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인과적 메카니즘을 통해 계급투표가 실현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계급투표의 인과적 메카니즘이 특전적 계급범주들과 비특전적 계급범주들 사이에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없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 Abstrac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tendency of left-wing governments to gain political power in Latin America is due to the failure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s well as social 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high inequality level and widespread poverty. Despite the fact that this macro level causality is made from voting behaviors of individual citizens at the micro level, there hasn't been enough research on this subje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icro foundation for the explanation of the macro phenomenon of left-wing government revival, and thus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voting actions in 2002 and 2006 Brazilian presidential elections, which led the trend of Latin American left-wing government revival.

Ou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ian presidential elections, this study came up with the following facts.

First, both 2002 and 2006 presidential elections have shown the existence of class voting phenomenon at a significant level, and the tendency towards class voting was strengthened in 2006 presidential election, which proves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class voting theory.

Second, it can be said that true class voting took place in 2006 presidential election.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class voting tendency grew stronger, there was a bi-polarization between the pro-Lula



bloc composed of non-privileged class categories and the anti-Lula bloc composed of privileged class categories, which strengthened the congruence of class location and class position.

Third, in the case of class categories which showed a change in support rate for Lula between year 2002 and 2006, the support rate of non-privileged class categories went up, while the support rate of privileged class categories declined. This can also verify the class nature of Lula government indirectly.

Fourth, bi-polarization between the privileged bloc and the non-privileged bloc regarding Lula government, and the subsequent strengthening of class voting tendency was shown not only among class categories, but also within each class category.

Finally, relatively stronger bi-polarization in 2006 presidential election compared with year 2002 means that ideological bi-polarization developed under the left-wing Lula government, while social and economic bi-polarization developed under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Key Words: Brazil, Lula, Workers' Party, Working Class, Class Voting, Presidential Election, Class Location, Class Interests, Economic Motive / 브라질, 룰라, 노동자당, 노동계급, 계급투표, 대통령선거, 투표행위, 계급위치, 계급이익, 경제적 동기

논문투고일자: 2009. 01. 19

심사완료일자: 2009. 02. 06

게재확정일자: 2009. 02. 10

## 참고문헌

- 조돈문(2005a), 「브라질 룰라정부 집권 2년의 경제정책과 ‘성공(?)의 덧’」, *경제와 사회*, 67호(가을호), pp. 113-136.
- \_\_\_\_\_ (2005b), 「룰라정부 집권전반부의 사회정책과 계급정체성: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65호(가을호), pp. 200-228.
- \_\_\_\_\_ (2008), 「브라질 노동자당의 집권과 계급적 기초」, *동향과 전망*, 제72호(봄호), pp. 287-325.
- Achterberg, Peter(2006), “Class Voting in the New Political Culture: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Voting in 20 Western Countries,” *International Sociology*, 21:2 (March), pp. 237-261.
- Andersen, Robert & Anthony Heath(2002), “Class Matters: the Persisting Effects of Contextual Social Class on Individual Voting in Britain, 1964-1997,”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8, No. 2 (June), pp. 125-138.
- Andersen, Robert, Min Yang & Anthony F. Heath(2006), “Class Politics and Political Context in Britain, 1964-1997: Have Voters Become More Individualiz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2, No. 2 (April), pp. 215-228.
- Balbachevsky, Elizabeth & Denilde Oliveira Holzacker(2004), “Identidade, oposição e pragmatismo: o conteúdo estratégico da decisão eleitoral em 13 anos de eleições,” *Opinião Pública*, Vol. 10, No. 2 (Outubro), pp. 242-253.
- Baudrillard, J.(1981),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St. Louis: Telos.
- Bell, Daniel(1974),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Harmondsworth: Penguin.
- Brooks, Clem, Paul Nieuwbeerta & Jeff Manza(2006), “Cleavage-based Voting Behavior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Evidence from

- Six Postwar Democracies,” *Social Science Research*, No. 35, pp. 88-128.
- Charnock, David(1997), “Class and Voting in the 1996 Australian Federal Election,” *Electoral Studies*, Vol. 16, No. 3, pp. 281-300.
- Clark, T. N.(2001), “What Have We Learned in a Decade on Class and Party Politics?,” in T.N. Clark & S. M. Lipset(eds.),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Boulder: Westview Press, pp. 6-39.
- Coutinho, Ciro & Rubens Figueiredo(2003), “A eleição de 2002,” *Opinião Pública*, Vol. 9, No. 2 (Outubro), pp. 93-118.
- Datafolha(2002), “Avaliação governo FHC,” 2002.12.15.
- \_\_\_\_\_(2003), “Avaliação presidente 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3.6.28.
- \_\_\_\_\_(2004), “Avaliação presidente 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4.12.26.
- \_\_\_\_\_(2006), “Avaliação presidente Luiz Inácio Lula da Silva,” 2006.12.18.
- Esping-Andersen, Gøsta(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vans, Geoffrey(1999), *The End of Class Politics? Class Voting in Comparative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atherstone, M(1991),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 Goldthorpe, J. H. et al.(1968), *The Affluent Worker: Political Attitudes*

- and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chter, Michael(2004), "From Class to Cultur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0, No. 2 (Sep), pp. 400-445.
- Hicks, Alexander(1999), *Social Democracy and Welfare Capit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uber, Everlyne & John Stephens(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nglehart, Ronald(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 J. Rabier(1986), "Political R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from Class-based Politics to Quality-of-life Politics,"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21, No. 4, pp. 456-479.
- Korpi, Walter(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Work, Unions and Politics in Swede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Lula da Silva, Luiz Inácio(2002), "Carta ao povo brasileiro," 2002.6.22, PT.
- Manza, Jeff, Michael Hout & Clem Brooks(1995), "Class Voting in Capitalist Democracies since World War II: Dealignment, Realignment, or Trendless Fluctu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No. 21, pp. 7-62.
- Meneguello, Rachel(1989), *PT: a formação de um partido, 1979-1982*, São Paulo: Paz e Terra.
- \_\_\_\_\_ (2002), "Marcos da esquerda brasileira nos anos 90: dilemas e avanços do Partido dos Trabalhadores," Universidade de Campinas, outubro de 2002.
- Mertes, Tom(2004), "A Republican Proletariat," *New Left Review*,

- 30(Nov/Dec), pp. 37-47.
- Miguel, Luis Felipe(2006), "From Equality to Opportunity: Trans for mations in the Discourse of the Workers' Party in the 2002 Election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 4 (July), pp. 122-143.
- Newby, Howard(1977), *The Deferential Worker*, London: Allen Lane.
- Nieuwbeerta, P.(2001),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in Postwar Societies: Traditional Class Voting in Twenty Countries, 1945-1990," in T. N. Clark & S. M. Lipset(eds.),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Boulder: Westview Press, pp. 137-161.
- Oliveira, Francisco(2002), "Lula é refundação do Brasil, diz sociólogo," *Folha de São Paulo*, 2002.10.29.
- Parkin, Frank(1967), "Working Class Conservativ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18, pp. 278-290.
- Przeworski, Adam(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drigues, Leônico Martins(2002), *Partidos, ideologia e composição social: um estudo das bancadas partidárias na Câmara dos Deputados*, São Paulo: Edusp.
- Samuels, David(2004a), "As Bases do Petismo," *Opinião Pública*, Vol. 10, No. 2 (Outubro), pp. 221-241.
- \_\_\_\_\_ (2004b), "From Socialism to Social Democracy: Party Organ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kers' Party in Brazi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7, No. 9 (November), pp. 999-1024.
- Singer, André(2001), *O PT*, São Paulo: Publifolha.
- Tavolaro, Sergio B.F. & Lília G. M. Tavolaro(2007), "Accounting for Lula's Second-Term Electoral Victory: 'Leftism' without a Leftist Project?," *Constellations*, Vol. 14, No. 3, pp. 426-444.
- Weakliem, David L. & Mark Western(1999), "Class Voting, Social

Change, and the Left in Australia, 1943-96,”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9, No. 4 (December), pp. 609-630.

Westergaard, J. H.(1970), “The Rediscovery of the Cash Nexus: Some Recent Interpretations of Trends in British Class Structure,” in Ralph Miliband and John Saville, *The Socialist Register 1970*, London: Merlin Press.

Wiener, Jon(2005), “Working-Class Republicans and 'False Consciousness',” *Dissent*, Vol. 52, No. 2 (Spring), pp. 55-58.

<http://www.ajlas.org>